

## “노동자의 꿈이 무대에 오른다” 제47회 근로자 가요제 본선 개최

- 953팀 지원 87대1 경쟁률, 숨은 실력자 11팀 본선 진출
- 자동차정비사·중소기업 가장·50대 밴드... 삶을 노래한 무대

퇴근 후 마이크를 든 노동자들이 무대 위에서 다시 꿈을 노래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노동부, KBS한국방송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47회 근로자 가요제」 본선 경연을 9일 오후 7시 여의도 KBS 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가요제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행사로, 올해로 47회를 맞았다. 올해는 총 953팀, 1,134명이 지원해 8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 가운데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11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실력을 겨룬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각자의 삶과 이야기가 담긴 무대로 채워진다. 비닐봉투 제조업체에서 20년간 근무하며 세 자녀를 키우는 40대 가장, 고향을 떠나 자동차정비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청년 여성 노동자, 50대에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계기로 대학 시절 꿈이었던 록 밴드를 결성해 음악 활동을 다시 시작한 직장인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노동자의 삶이 음악으로 표현된다.

근로자 가요제는 참가자들의 수준 높은 실력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번 본선 역시 심사위원들로부터 “완성도 높은 무대가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행사의 취지를 반영한 ‘특별상’을 신설해 참가자들의 노래 실력 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의 삶과 현장을 조명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가요제는 KBS 이재성, 박소현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가수 김조한, 김경호, 뮤지컬배우 홍지민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홍지민, 자두, 송가인, 박서진, 라포엠 등 초대 가수들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본선 결과는 현장에서 발표되며, 대상(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경연은 5월 1일 노동절 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바쁜 일과 속에서도 꿈과 열정을 잃지 않은 참가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에 문화와 예술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47회 근로자 가요제 포스터

담당 부서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	책임자	부 장	김혜경 (052-704-7301)
		담당자	팀 장	서정효 (052-704-7330)



참고

## 제47회 근로자 가요제 포스터

초대가수 홍지민 자두 송가인 박서진 라포엠

# 가요제

## 노동자문화예술제

여의도 KBS홀  
녹화: 2026년 4월 9일(목) 19시  
방송: 5월 1일(금) KBS 1TV 예정

주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방송 주관 KBS 미디어 협찬 IBK기업은행

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